

치 사

한국불교는 시민의 요구이면서 시대적 사명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원처럼 맑은 인성이 넘치는 사회를 이루고, 사람의 삶과 마음에 평온으로 깃드는 일상의 활력이어야 합니다. 산중에 머물던 불교를 넘어 도심에서, 나아가 필요한 어느 곳이라도 살아 숨 쉬는 불교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현대불교의 중심에는 봉은사가 있습니다.

봉은사는 세계적 도시인 서울의 중심에 자리한 포교도량이자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사찰입니다. ‘성종의 은혜를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로 성종과 정현왕후의 능묘인 선정릉 宣精陵을 관리하는 왕실 사찰이기도 하였습니다. 문정왕후와 보우대사의 원력으로 선교禪敎 양종을 복원하고 스님들의 과거제도인 승과僧科을 부흥시키며 선종의 수사찰 首寺刹로 자리매김하였고, 서산대사 사명대사와 같은 큰 스님들이 승과를 통해 배출되는 등, 조선중기 불교 중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간을 토대로 언제나 나라와 민족의 삶을 살피왔고, 다시 깊은 감화의 마음들이 쌓여 공덕을 나누는 숨 쉬는 터전으로 한국불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대마다의 정성과 소중한 발원들이 이룬 유형의 자산에는 고귀한 정신이 생생히 살아있기에, 우리는 세계속에 전통과 문화를 자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봉은사는 추사 김정희가 별세할 때까지 기거하며 시서화선詩書畵禪의 일치를 이루며, 불교에 마음을 크게 기울여 추사체의 완성을 이룬 인연이 깊은 도량입니다. 특히 「판전板殿」과 「대웅전大雄殿」의 현판을 보유하고 있으며, 「판전」은 경학經學에 관심이 많았던 김정희가 화엄경 경판을 보관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무렵에 쓴 것으로 추사의 대단원大團圓이라는 각별함이 담겨있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불교 중흥의 중심과 추사 김정희의 마지막 작품 등, 수승한 전통문화의 수뇌부인 봉은사의 문화재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어 청명하고 풍성한 절기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정신까지 전시하고자 진력을 다하신 원학스님과 화범스님, 그리고 귀중한 정보를 맡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명한 절기의 기운과 함께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문화의 자긍심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불기2558년(2014) 9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